



만해 스님의 기개를 잇는 청년불자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 1만전법단 결성해 미래의 주역 되자

### 부산 범어사에서 열린 제25차 전국불교청년대회

#### # 첫째날

#### 흥겹게 놀고 희망을 만나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우암초등학교 5학년 5반 박서현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모 삼촌들 앞에 서니까 떨리네요.”

6월 10일 (사)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익석, 이하 대불청) 주최, 대불청 부산지구(회장 손정현) 주관으로 25차 전국불교청년대회가 열린 부산 범어사는 이날, 전국에서 모여든 1500여명의 청년 불자들의 열기와 함성으로 가득했다. 지구별 공연과 초청가수 공연 등으로 흥을 한껏 돋우며 전야제가 막바지에 이를 즈음 무대 위로 올라선 꼬마 숙녀는 죄종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조명을 받으며 무대에 우뚝 선 서현이는 전국에서 모여든 청년들을 향해 아무런 다짐과 약속을 하고 있었다.

“청년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너무 바쁜 아빠에게 불만도 많았지만 오늘 이렇게 멋진 무대와 자리를 꼭 매운 이모 삼촌들을 보니 아빠가 자랑스럽다”며 “오늘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빠 앞에서 그리고 여기 계신 이모, 삼촌들 앞에서 이 다음에 커서 아빠처럼 불교청년회에 들어

가도 또 멋진 불자가 되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서현이는 대불청 부산지구 박상연 부회장의 딸로 이날 전국에서 모여든 청년 불자들의 가슴에 ‘희망’을 심어준 상징이 되었다.

“너는 미래의 희망이다”라는 말을 아빠에게서 자주 들었다는 서현이가 “아빠처럼 늘 마음속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바르게 자라던데 아빠가 늘 말씀하신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 불교 운동의 방향성과 미래를 보여준 까닭이다.

흥에 겨워 서로 어깨에 어깨를 걸고 하나로 어우러졌던 전야제는 서현이의 편지와 함께 극에 달했고 대불청가(가)가 금정산의 어둠을 헤치며 찌렁찌렁 울려 퍼지게 했다.

이에 앞서 펼쳐진 장예우들로 구성된 성우원 합주단 연주, 어린이 불무도 시연, 대불청 부산지구 특별 지회인 불자 남성중장단 청공 공연, 각 지구별 장기 자랑, 불자 초청가수 공연 등 다채롭게 펼쳐진 잠산하고 잠 진 공연들도 호응을 얻었다. 전야제는 ‘즐거게’ 본대회는 ‘장엄하게’ 진행된다는 취지에 걸맞게 젊은 불자들의 흥과 끼가 마음껏 발산된 전야제였다. 속소인 안국선원으로 옮긴 청년 불자들은 전국에서 모여든 도반들과 담소를 나누며 모처럼의 소중한 만남을 재확인했다.

####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끼 발산

#### 전야제 즐겁고 본대회는 장엄

#### “수행 힘으로 법 퍼리라” 다짐

#### # 둘째날

#### 내일부터 희망전법순례단 가동

둘째 날 법당을 가득 메운 청년 불자들은 새벽부터 연습속하게 하루를 시작했다. 둘째 날에는 특별행사로 만해 스님 일대기, 기초 교리 등의 문제를 푸는 퀴즈대회인 ‘불청, 범종을 울려라’와 국제불광회 청년회장 혜전 스님의 초청 강연이 펼쳐졌다. ‘청년 조직의 새로운 비전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적인 조직력을 자랑하는 국제불광회의 결집력을 한수 배우는 자리가 됐다.

오전 11시, 범어사 대웅전 앞에서 본대회가 봉행됐다. 지은아 대불청 부산지구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대회에서 김익석 회장은 “전국의 도반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애를 다지고 함께 화합하는 오늘, 1만 청년 전법단을 결성하고 한국 불교의 희망이 곧 청년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행사의 하이라이트는 1만 청년전법단 결성 선언문 채택. 창립 86주년을 맞은 대불청이 ‘청년! 희망을 말하다’



전국불교청년대회 첫째날 열린 전야제에서 부산지구 회원들이 흥겨운 꼭짓점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라는 주제로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하면서 청년 스승로가 희망이 되고 미래 불교의 희망을 만드는 주역이 되고자 1만 전법단 결성에 나선 것이다.

안상수 대불청 부회장은 1만 청년전법단 선언문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가르침과 같이 나만의 공부, 나만의 부처되기 아니라 내 안의 부처님 마음을 밝게 밝히고, 나아가 중생제도의 큰 행원으로 보살도를 다하고자 서원한다”고 밝혔다.

대불청은 ‘1만 청년전법단 결성’이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또한 대불청 부산지구의 경우, 빠르면 7월부터 희망전법순례단을 꾸려 13개 지구에 있는 지역을 순례하며 청년전법단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 재생산해나갈 방침이다. 1박 2일 일정으로 사찰을 방문, 그 지역 청년 법우들과 합동 법회를 열고 전법단 활동에 불을 붙이겠다는 각오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손정현 회장은 “청년 불교의 희망은 수행과 열정에 있다는 걸 재확인한 대회였다”며 “전법을 위해 인도의 흙길을 일명생경 견고 걸었던 부처님의 뒤를 따라 스스로 수행하는 청년, 그 수행의 힘으로 법을 퍼는 청년으로 거듭한다면 분명 희망은 있다”고 강조했다.

글·사진/부산=천미희 기자

#### 일터가 도량입니다

### 아이들 앞에서도 항상 ‘하심’

서울 선우어린이집 한창숙 원장

부처님과 어린이의 공통점 하나. 바로 깨끗하고 순수한 미소다. 어떤 번뇌에도 물들지 않아 세상 모든 것을 품을 듯한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느껴진다. 서울 강남 선우어린이집 한창숙(45·성불원) 원장의 미소 역시 부처님·어린이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부처님 말씀대로 아이들 한명 한명이 모두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어떤 힘도 솟아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이들을 닮아가나 봅니다. 하하하!”

한 원장은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먼저 되돌아보고 대안을 찾아본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면 수행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야겠다는 다짐뿐입니다.”

동적이고 재학시절부터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불교와의 인연을 맺어 왔지만, 아직도 공부 부족하다는 한 원장. 그래서 최근에는 불교기초부터 다시 배운다는 생각으로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진행하는 ‘고우 스님의 <육조단경> 강좌’를 듣기 시작했다.

또 유아교육분야의 전공을 살려 중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천하는 한창숙 원장.

어린이들을 길러낸 불교계 대표적 유아교육 전문가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봉은사는 ‘삼고초려’ 끝에 위탁을 영하고 있는 선우어린이집 원장으로 한창숙씨를 선임했다.

1~7세 어린이 167명과 19명의 교직원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한 원장은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바쁘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열려 있는 어린이집의 모든 살림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시기별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어린이집을 찾는 학부모들을 만나 각종 상담을 하다보면 하루 해가 짧다.

“당연히 힘들 때가 있지요. 아이들의 특성상 갑자기 아픈 경우도 많고, 또 선생님들과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한 원장은 항상 하심(下心)을 생각한다. 먼저 자기 자신을

양심도회가 계획 중인 각종 프로그램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남편과 딸의 손을 이끌고 봉은사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과 중의 하나다.

“불교계 유아교육 시설은 사람이 라는 훌륭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과 들에서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려 합니다.”

어린이집이 도심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휴과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한 원장은 앞으로 자연친화적 생태교육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 원장은 강조한다. “논과 밭에서 자라는 미물들도 사랑을 받아야 잘 자랍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로요. 어린이집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며 사는 공간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글·사진=유철주 기자

## 불교의식(범음·범패)수련생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 수련과정 :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 26기)
- 교육방법 : (1) 출강 ..... 매주 화요일·목요일 오후 3시~5시(2시간)  
(2)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① 송 주 편 (도량서·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조석예불·각단예불·향수해례·사성례·신중단 등)  
③ 현 공 편 (삼보통칭·중단회공·불공시식·관음·지장·신중탱 등)  
④ 재의식편 (천도제·49제·시다림·기계사·명절제사·방생의식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화엄시식·상용영반·구병시식 등)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 개강일시 : 2006년 7월 6일(목) 오후 3시(목탁,필기구 지참)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법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한선빌딩 3층)  
☎ 02)720-1836 · 733-1959

## 부처님 당시 제자 500나한 불사 검 1000일 기도

오백나한 검 천일기도를 불사 받아 수도권 최고의 나한전(羅漢殿)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라한은 응공(應供), 응진(應眞), 무학(無學), 이악(離惡), 불생(不生) 등으로 불리우며 성문(聲聞)들 가운데 최고의 성자 육계색계 무색계의 모든 번뇌를 완전히 끊어 열반을 성취한 성자를 일컬으며 복덕이 구축하고 신통 자재하여 모시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네 인생,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나한 불사도 인생에 한번 인연 닿기 힘든 불사입니다. 어렵게 만난 인연들 소중이 성취하시고 그 공덕으로 가정의 화목과 건강, 사업성취, 소원성취, 학업성취 나아가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권 하얀마음선원 덕봉 합장

031)707-0108  
분당선 이매역 1번출구 SK주유소 옆 도로보로 5분거리

##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헌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던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 043-647-2378, 011-467-1472